

우리 가족의 파수꾼

에세이

신중재

전 영광초등학교장



하세요!”그러면서 딸에게 말을 걸었다. 응답은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의식은 잃지 않았다. 체하면 엄지와 검지 사이를 세게 압박하여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거나 토하는 경험을 자주 한 내는 죽을힘을 다해 벌벌 떨면서 지압을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큰딸이 아프다고 반응하며 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붙걸,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갈 때, 딸은 구토를 심하게 두 번 했다. 그러더니 “엄마 이제 살 것 같아.”라고 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큰딸을 살려 주셔서!” 그런 후, 큰딸의 맥박도 정상이고,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안심하였다. 위기를 넘긴 우리들도 안정을 되찾고, 다낭공항까지 2시간을 남긴 비행기도 밤하늘을 경쾌하게 나르며 가는 길을 재촉했다.

탑승 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 몇잔과 소화가 잘 안되는 고기를 먹고 급체했던 것이 아닌지? 3박 5일 여행 일정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큰딸이 또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나?” “걱정 말아라. 베트남에서 최고의 건강식품을 샀지 않느냐?” 든든한 의사라도 얻은 듯이 아내가 큰딸을 안심시켰다. 한 알을 먹고, 40분이 지나니 증상이 가라앉아 탑승 절차를 밟았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 정상이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큰딸은 서울행, 출근 버스에 올랐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니 “아빠, 걱정 마세요! 아주 정상입니다. 모두 부모님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과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은 팔뚝 출이라지만, 아내는 간호사요. 요양사이며 영양사이다. 정신과 의사라고 말할 수 있고, 나와 지식들의 심리치료사이며, 사업가이다. 가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 조절하는 조종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번 여행만 해도 아내가 여행 절차를 밟아 예약하고 계산하니 자식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따른 것 같다.

필자도 젊은 시절 구안와사로 혼나기는 했으나 간단한 시술, 수술로 그때마다 위기를 넘겼고, 질순에 접어 들어서는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여 관리하고, 혈압약 한 알 먹을 정도로 아직 큰 병이 없는 것도 모두 아내 덕이다. 몸 무게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옥상에 채소를 길러 상추나 부추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거나 된장국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밥상에 동동주와 함께 오른다. 운동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김밥을 싸 들고 무등산으로 향한다.

이번 가족여행에서 큰딸이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경험했다. 아내가 나를 건사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평소 충실히 하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하느님은 필자 부부를 질긴 인연의 끈으로 묶어 자식 넷을 주셨고, 손녀들까지 한 가족의 동아줄로 꽂꽂 묶었으며, 아무래도 아내를 우리 가족의 파수꾼으로 주신 것만 같다.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식구들끼리 함께 가는 여행이라서 여느 때보다 즐겁고 설렘이 가득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한 시간을 순항하니 여행지를 상상하며 슬금슬금 잠이 들었는데, 긴급방송이 켜졌을 때더니 화들짝 놀랐다. “의료인을 찾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기내 뒤쪽으로 승무원들이 급히 달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 소리와 고통 당하고 있는 환자, 승객들의 긴장감 때문에 필자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잠시 현기증이 났다.

그때, 뒤쪽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 큰 며느리가 겁에 질려 “어머니! 형님입니다.” “거, 무슨 소리냐!” 급히 뒤쪽으로 달려가보니 큰딸이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기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벌리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앞뒤로 의자 여섯 개를 비우고 그 밑에서 간호사 두 분이 손가락에 혈압계를 채워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 내외가 오니 간호사들은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있었다.

곧바로 아내가 치료를 시작했다. “여보! 다리를 위로 올리고 피가 잘 돌도록 전신을 주물러 주어야 해요! 빨리빨리



사진으로 보는 세상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헤르손에서 흉수 대피 중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한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범들이 대피로와 민간인들이 탄 보트 등에 포격하고 있다”라며 “짐승들도 러시아보다는 도덕적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헤르손=AP/뉴스시

서석대



태국 경찰의 ‘뇌물 지급 확인 스티커’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스티커는 경찰에 뇌물을 제공했음을 알리는 표식으로, 화물차에 붙이면 경찰이 과적 단속을 면하게 해 주는 이른바 ‘무사통과 출입증’이다. 이 스티커는 태국 개혁 성향 전당 소속 위룻 라카나야디슨 의원의 의혹 제기로 공론화됐다. 위룻 의원은 뇌물 스티커는 웃는 태양, 토끼, 판다 등 모양이 다양하고 통과 가능 검문소, 경찰관할구역의 규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 별이라고 폭로했다. 지역이 한정된 단거리 리스티커는 3000~5000바트(11만~19만원), 전국 모두 적용되는 장거리 스티커는 3만~5만바트(110만~190만원)에 거래됐다. 뇌물은 과적을 하거나 단속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자들이 매달 건네는 월납 형태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 스티커 부착 차량 운전자는 과적을 하더라도 체포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구조적인 과적 단속 뇌물 비리에 태국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뇌물 스티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태국 경찰은 뇌물 스티커에 대한 전방위 수사 와 함께 연루된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예고했다.

태국 경찰의 뇌물 스티커에 과거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범칙금 대신 교통경찰에 돈을 쥐여주던 우리나라 상황이 떠올랐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현금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다. 한때는 운전자들에게 ‘뇌물용’ 1만원 지폐가 필수품처럼 여겨졌다. 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사이에 1만원 지폐를 끼워 넣고 다니기도 했다.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 범칙금 대신 비용도 적게 들고 벌점도 없는 ‘1만원짜리 범칙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돈을 준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하고, 신호위반 운전자에게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에 힘입어 단속 현장의 금품 제공은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며, 한 국가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경찰의 비리·부패 소식을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 다행이다. 박성원 편집국장

전남권 의대 설립, 지자체 의견 반영해야

社說

의협 ‘신설 절대 반대’ 고수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도다.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의협이 또 다시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와 고질적인 지역 의료 격차, 고강도 업무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까지, 열악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이 ‘의사 인력 확대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전남은 매년 70만 명의 도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의료비 유출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의료현실도 참담하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9명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전남에 근무하는 의사 수 또한 전체의 2.9%인 3128명으로 이들 의사 중 600여명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만 협의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 물론 시·도민과 자치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옳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남의 의대 설립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유일한 대안인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도움도 절실하다.

피의자 ‘역대급 도주’ 경찰은 할 말 있나

월곡동서 베트남인 10명 도주

무려 10명이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동시에 도주한 피의자들 숫자다. 1명 이어도 지역이 시끄러울 판에 무더기로 도망간 것도 놀랍지만 ‘베트남인들의 체구가 작아서 도주했다’는 말 역시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지난 11일 오전 3시 19분 광주경찰은 ‘월곡동한 주택에서 집단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다목적 기동대·지역 경찰 등 15명을 급파, 베트남인 총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부터 판돈 1500만 원 상당을 걸고 훌쩍을 맞추는 전통 도박 ‘속피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위해 베트남인 전원을 월곡지구대로 순차적 임의동행해 공간이 넓은 1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통제에 잘 따르자 이들에게 따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 여기까지 경찰의 행보는 나무랄 데 없었다. 신속하고 민주적이었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회의실에는 바깥으로 밀면 16cm가량 열리는 ‘시스템창’이 있었는데,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 10명이 벌어진 창 틈으로 머리와 몸통을 집어 넣어 빠져 나간 것이다. 당시 회의실에는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창살 등이 없었고 감시 인력마저도 따로 배치되지 않았다. 나아가 경찰이 이들의 도주를 파악한 것은 임의동행 후 1시간여가 지난 오전 6시 40분쯤이었다.

짚고 넘어갈 점은 경찰서 탈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지난해 같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도주한 사례가 기억에 생생하다. 경찰서보다 규모가 작은 일선 지구대에 23명이나 되는 피의자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 관리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재교육과 더불어 보안 강화도 절실하다.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잡아두지 못한다면 시민은 누가 지키겠는가.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